

# “지자체 복지 지출 늘어 자립도 악화”

### 전국 243곳 중 재정자립도 50% 미만 220곳 달해 광주전남연구원 분석 ... 지역 지자체 대부분 10%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어 향후 지자체 파산, 국가재정 투입 등의 문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에 기고한 논문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 분권 강화’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경우 전체 재정의 절반, 시·군의 경우 30%를 사회복지에 투입하고 있었다. 결국 사회복지비 지출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재정 중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

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 단 한 곳(0.4%)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가 10~30%인 지자체는 153곳(63%)으로 가장 많았다. 30~50%는 65곳(26.7%), 50~70%는 22곳(9.1%)이었다.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2곳(0.8%)이나 됐다.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220곳(90.5%)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6년간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을 차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대부분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인 10%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광주 자치구에서는 남구가 13.5%로, 전남 시·군에서는 구례군이 9.9%로 가장 낮았다.

오 연구원은 지방재정이 취약한 이유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급증을 꼽았다.

지자체의 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율은 가

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전체 세출의 21.4%(38조6230억원)였던 사회복지 부문은 2014년 26.3%(59조8089억원)까지 늘었다.

연평균 12.7%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항목이었다.

오 연구원은 이러한 예산 구조로는 투자적 지출을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8 : 2 수준인 국제 대 지방비율을 단계적으로 6 : 4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방재정 총량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관행적이고 틀에 맞는 예산 편성에 치우쳐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주적 정책 결정과 집행, 그에 따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주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대선후보 선거 벽보 공개 19대 대선에 출마하는 각 당 대선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공개됐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연합뉴스

# “농촌경제 버팀목 농공단지 규제 완화해 달라”

### 전남도농공단지협, 각당 대선 후보에 공약 반영 요청

전남도 농공단지협의회가 농공단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공단지 규제 완화, 입주 기업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현안문제 해결을 각 정당 대통령 후보에게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 농공단지협의회는 17일 “지난 14일~15일 양일간 완도에서 개최한 ‘농공단지 지속가능발전방향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 정당에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점

단단지, 농공단지 등은 모두 1158개로 이 가운데 468개가 농공단지다.

1960년대 농가부업단지 조성책을 시작으로 1970~80년대에는 농의 소득증대, 공장의 지방분산 정책 등으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했다.

지난해 농공단지 생산액과 수출액은 6조1000억원과 13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전남에는 68개 농공단지에 1000여 기업이 입주해 1만5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협의회는 ▲농어촌정비법 등 법·제도의 개선 ▲‘농공단지 생산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농공단지의 규제 완화 및 예산 지원 방안에 관한 모색 ▲농공단지 입주기업 성장지원센터 설립 ▲농공단지 맞춤형 지원 특성화 정책 추진 등을 요청했다.

나향도 전남도 농공단지협의회장은 “농공단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켜내는 성장동력으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농공단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요청이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한신협 대선 후보 인터뷰

자유한국당 홍준표

# 나주에 인공지능·사물인터넷 융합 인프라 구축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한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기대선의 프레임이 ‘탄핵대선’에서 ‘안보대선’으로 바뀌고 있다며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보궐선거 승리에서 보듯, 여론 조사와 달리 대구·경북지역(TTK)에서 한국당에 대한 보수층이 집결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보수층의 지지가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이번 대선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안보문제에 대해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수세적 방위력 증강에서 공세적 국방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이를 위해 해병대와 특전사령부를 통합, 해병특수전 사령부로 확대하는 등 현재의 육·해·공 3군 체제에서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배치와 핵무장론과 관련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한반도 전술 핵무기 배치를 추진하고 사드 배치를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겠다. 또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하고자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과 크게 다를 바 없



‘탄핵’서 ‘안보대선’으로  
조기대선 프레임 바뀌어  
사드배치 상반기 마무리  
스트롱맨 이미지 안 바뀌

다. 만약 재개가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이 보장될 상태여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본인의 ‘스트롱맨 이미지’에 대해서는 “가난한 유년시절과 혼돈의 시대를 힘겹게 극복하기 위해 나 자신을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니 강한 이미지를 지니게 됐다. 이미지를 억지로 바꿀 생각은 없다. 국민에게 흉준표란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수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가식적인 모습보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국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평가를 요구하자 “두 후보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광주 전남 현안과 관련 나주혁신도시에 글로벌 에너지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사물인터넷 융합기술 인프라 구축하고 미래부 국가전략프로젝트인 ‘가상(VR)·증강(AR)현실 생태계구축’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위치한 전남에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소개했다.

또 군소 도시지역 연안 여객선 접안 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낙도기항지 선착장 확충 등 도서 지역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정주 환경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5·18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5·18 헬기 사격, 발표명령장 규명에 대한 요구가 거센 상황에 대해 입장을 묻자 그는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지영 기자 jkpark@kwangju.co.kr

# 완도해조류박람회 개장 3일 만에 10만명 돌파 ‘대박’ 조짐

지난 14일 막이 오른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가 개장 3일 만에 누적 관람객 10만명을 돌파해 큰 흥행을 예고했다.

박람회조직위는 개막 이후 3일만인 지난 16일 기준으로 누적관람객 10만1781명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방문객 가운데는 외국인도 746명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돼 박람회의 가장 큰 목적인 국제화도 전망이 밝아 보인다.

조직위는 주말·휴일이 겹치고 전시관마다 차별화된 콘텐츠가 관람객을 끌어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람회장 10만 번째 입장객의 영예는 대전에서 온 김주홍씨 가족이 차지했다. 김씨 가족은 꽃다발과 완도특산물 등을 선물로 받았다. 조직위는 앞으로 30만, 50만, 60만 번째 관람객에 대해서도 각각 축하이벤트를 계획 중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개막 3일차에 관람객 10만 돌파는 박람회가 순항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목표관객 60만 달성과 관람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조류박람회는 ‘바닷말의 약속, 미래의 도전’을 주제로 다음달 7일까지 24일간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에 김성호씨

광주시는 최근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로 김성호(63)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을 선정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8명의 응모자 중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 심사 후 면접을 거쳐 자체 추천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데 김 전 본부장을 적임자로 최종 낙점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지난 2월21일 1차 공모 당시 면접에서 탈락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당시 차기 사장



공모에 나섰으나, ‘선임 대상 없음’으로 걸러내면서 지난달 23일 재공모를 실시했다. 김 후보자는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보장  
**무료 청력테스트** 상담점검  
서울 **본사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오티콘 보청기 **홈케어 서비스**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객중심 무료 맞춤형 서비스

농성역 또는화정역 역에서 100m가량 직진 후,1층 102호로 오시면 됩니다.  
**광주지사 직영점 062-364-8800**

oticon PEOPLE FIRST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